

## ‘靖難之變’의 변용과 그 시대적 의미 — 청대 『女仙外史』를 중심으로

김정아\*

### 【목 차】

1. 들어가며
2. 명대의 정치적 사건 ‘靖難之變’
3. 『여선외사』 속 ‘정난지변’의 변용
  - 1) 대립구도의 변화
  - 2) 4년간의 전쟁이 26년간의 대전쟁으로
  - 3) 연왕: 亂臣賊子
4. ‘정난지변’의 변용과 그 시대적 의미
5. 나오며

### 【초록】

본 논문은 청대초기에 창작된 소설 『여선외사』가 명대의 사건인 ‘정난지변’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하였는가를 그 서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여선외사』에 구축된 서사세계에 대한 내적 분석에서 출발해 그 외연을 문인집단의 의식층위에 관한 분석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청대 초기 ‘리라이팅’된 정난의 이이야기가 당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원인과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키워드】 여선외사, 정난지변, 건문제, 연왕(영락제), 역사의식, 평어, 팩션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shun7ziran@naver.com)

## 1. 들어가며

중국고대소설사에서 실존인물이나 실제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한 작품은 결코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오늘날 명대의 4대기서로 꼽는 작품들 중 무려 세 작품이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창작되었다. 소설 『三國演義』는 정사 『三國志』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과 인물을 변용시켜 만들어졌고, 『水滸傳』과 『西遊記』 역시 과거 기록된 사건을 모티브로 창작되었다. 그 외에 『隋唐演義』, 『封神演義』 등도 역사서사를 기초로 탄생되었으니, 이쯤 되면 중국 고대사회에서 역사소재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상당히 환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여선외사』는 소재의 측면에서 보자면, 위의 소설들의 계보를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서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길, “무릇 건문제가 나라를 다스린 4년 동안 천하에 인풍이 넘실대었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빼앗긴 날, 깊은 산골의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 없었다. 나는 수 백 년이 지난 후 태어났으나, 그 책을 읽고, 그 사건을 고증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오고 분노로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외사』를 쓰게 되었다.”<sup>1)</sup>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문제는 명의 2대 황제인데, 황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숙부에게 제위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정난지변’이라 부른다. 작가는 바로 이 정난의 비극성에 주목하였고, 이것이 이 소설 창작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위의 소설들과 『여선외사』는 역사 속 원형이 되는 사건이 소설로 재탄생하기까지 사뭇 다른 과정을 거친다. 위의 작품들이 각각의 원형서사가 민간에서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대중의 기호와 바람이 투영되는 일종의 집체 창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면, <sup>2)</sup> 『여선외사』는 呂熊<sup>3)</sup>이라는 한 무명작가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따라서 『여선외사』의 경우 소설이 창작되고 전파되던 그 시기에 대중성을 담보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1) “夫建文帝君臨四載，仁風洋溢，失位之日，深山童叟莫不涕下。熊生於數百年之後，讀其書，考其事，不禁心酸發指，故為之作『外史』。”(『古稀逸田叟呂熊文兆自敘』) [清]呂熊, 『女仙外史』, 앞의 책, p.1070.

2) 중국고대 장편소설(장회소설)의 成書방식은 주로 원형서사가 설화자에 의해 구연의 형태로 민간에서 오랜기간 전승되다가 활자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크게 ‘눈 굴리기식(滾雪球)’과 ‘취합식(聚合式)’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눈굴리기 식’은 원형서사가 구연전승의 과정과 활자화되는 과정에서 소설의 세계가 확장되는데, 『삼국지연의』, 『봉신연의』, 『수당연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취합식(聚合式)’은 동일한 역사사건을 소재로 하되,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민간에 전승되다가, 한 작가의 손에 의해 하나의 소설로 취합된 방식으로 『수호전』, 『서유기』가 이에 해당한다. 위의 두 방식 모두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민간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편폭이 증가하고 기술방식이 세련되어 졌을 뿐 아니라 서사세계도 풍부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石昌渝, 『中國小說原流論』, 三聯書店, 1994, pp.290-344 참조.

3) 여웅은 昆山縣(지금의 江蘇省) 사람으로 자는 文兆이고, 호는 逸田叟이다. 생물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대략 명 崇禎(1627-1644) 말경에 태어나 청 康熙 말경이나 雍正 원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된다. 『昆山新陽合志』 권25 「人物·文苑」의 기록에 따르면, 다방면에서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로, 1682년부터 적어도 1711년까지 30여 년을 관리를 보좌하는 幕僚로 지냈다. 작가의 자세한 생평에 대해서는 김경아, 「청대 『여선외사』의 재조명」, 『중국학』, 제46집, 2015, pp.194-195 참조.

살펴보면, 100회라는 긴 편폭 안에 인물사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인명이 등장하고, 仙界, 魔界, 인간계가 공존하는 황당한 세계관이 펼쳐지며, 개연성이 부족한 사건전개와 함께 禮樂, 典章, 兵法, 財賦, 治水, 鹽鐵, 律曆, 醫術 등 다방면의 지식들이 맥락 없이 나열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고대소설사에서 그 문학성을 평가할 때 『여선외사』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이 의외로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여웅의 소설은 고대통속소설로는 드물게 67명(작가로 추정되는 外史 포함)에 이르는 인사들이 대거 序跋과 評語를 남겼다. 당시의 고관대작과 문단의 영수, 지방 관리, 유명 화가와 희곡 작가 등이 대거 이 소설을 품평한 것을 두고, 중국학자 章培恒선생은 “고대 통속소설사에서 전무후무한 현상(這在古代通俗小說中是空前絕後的現象)”<sup>4)</sup>이라고 놀라워했다. 이처럼 정난을 다룬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서사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당시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큼 時宜性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대의 소설 『여선외사』가 명대의 사건인 ‘정난지변’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하였는가를 그 서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다음으로 변용된 서사세계에 대한 67인의 평어를 통해 이들이 변용된 이야기를 수용하는 방식과 그들의 역사의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여선외사』에 구축된 서사세계에 대한 내적 분석에서 출발해 그 외연을 문인집단의 의식층위에 관한 분석으로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대 초기, 다시 쓴 정난지변의 이야기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유와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명대의 정치적 사건 ‘靖難之變’

명의 태조 주원장은 나라를 세운 후, 장자인 朱標를 태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태자 주표가 요절함에 따라, 명 황실의 후계구도가 흔들리게 된다. 주원장은 주표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朱允炆을 후계자로 내정하지만, 문제는 변왕으로 봉해진 주원장의 아들들이 북방의 이민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병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중 현재의 북경인 북평에 분봉된 燕王 朱棣의 세력이 가장 강하였다.

洪武 31년(1398), 마침내 태조 주원장이 죽자, 황태손인 주윤문(즉 건문제)이 16세에 제위를 계승하게 된다. 황위에 오른 건문제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변왕들은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숙부들이긴 했으나 또한 잠재적 위협요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왕이 奔喪을 이유로 남경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건문제는 태조의 유언을 들어 연왕의 남경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sup>5)</sup> 태조의 죽음이후, 중앙황실과 변왕들의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건문제는 신하

4) 중국학자 장배항은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출간한 『女仙外史』의 前言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67인이 이 평어를 남긴 예는 고대통속소설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清]呂熊, 『女仙外史』, 앞의 책, p.7.

5) 至是燕王自北平奔喪, 援遺詔止之, 於是諸王皆不悅, 流言煽動, 聞于朝廷. 謂子澄曰: “先生憶昔東角門之

齊泰, 黃子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숙부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削藩을 감행하기로 한다. 다만, 삭번의 순서에 있어 제태와 황자징의 의견이 갈렸는데, 제태는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연왕부터 삭번할 것을 건의하지만, 황자징은 연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잘못이 없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히 과오를 저지른 번왕부터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건문제는 명분을 강조한 황자징의 건의를 채택하고, 대의를 내세워 비교적 세력이 약했던 다섯 명의 번왕들을 차례로 처리하기에 이른다.

당시 북방민족을 평정하면서 세력을 떨치던 연왕 주체는 건문제의 삭번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급기야 ‘황제 옆의 간신을 제거하여 제실의 위난을 평정한다(靖難)’<sup>6)</sup>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 황실과 정면대치하게 된다. 이윽고 건문 4년(1402) 6월, 4년간의 치열한 내전 끝에 연왕은 마침내 남경을 함락시키는데, 마침 황성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문제는 화마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궁에 입성한 연왕은 제위에 오르고, 연호를 永樂이라 하는데, 그가 바로 영락제(成祖)이다. ‘정난지변’은 바로 건문제 주변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연왕이 일으킨 난을 가리킨다.

연왕은 수도인 남경으로 입성한 후, 신하들의 주청에 못 이겨 양위 받는 형식으로 제위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연왕은 건문제에게 충성했던 제태, 황자징, 練子寧, 鐵鉉, 景淸 등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 아니라 당시 학자로서 문인들에게 존경받던 방효유의 十族<sup>7)</sup>을 멸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인다.

가장 잔인하게 살육당한 이는 방효유의 무리인데, 연좌당하여 죽은 자 870명이었다. 추근의 사안으로 주살당한 자 440명이었다. 연자녕의 하옥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자 150명이었다. 호운의 하옥으로 인해 그의 가문에서 연루되어 체포된 자 217명이었다. 동용의 체포로 죽은 친인척이 230명이었다. 이 밖에도 탁경, 황관, 제태, 황자징, 위면, 왕도, 노원질의 무리들이 많게는 3족을 멸문당하고, 적게는 1족을 멸문 당했다.

(受戮之最慘者, 方孝孺之黨, 坐死者八百七十人; 鄒瑾之案, 誅戮者四百四十人; 練子寧之獄, 棄世者一百五十人; 陳迪之黨, 杖戍者一百八十人; 司中之系, 姻婭從死者八十余人; 胡閏之獄, 全家抄提者二百七十七人; 董鏞之逮, 姻族戍者二百三十人; 以及卓敬、黃觀、齊泰、魏冕、黃子澄、王度、蘆原質之徒, 多者三族, 少者一族也。)<sup>8)</sup>

방효유는 당시 문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학자였기에 영락제는 그에게 자신의 즉위조서를 작

言乎?” 對曰: “不敢忘。” 於是始與泰建削藩之議. 朱允炆繼位後開始削藩. 在削藩順序上, 齊泰認為應先削實力最強的燕王, 時戶部侍郎卓敬亦上疏請改燕王封地於南昌. (『明通鑑』卷11)

6) 명 태조 주원장은 아들들을 번왕으로 분봉하였고, 성문법의 한 조칙으로 ‘정난’에 관한 것을 남겼다. 당시 주원장은 권신들이 찬위할까 꺼려했기 때문에, 번왕들에게 중앙의 간신을 제거하고 병사를 일으켜 황제의 측근을 소탕할 권리를 부여했다. 그는 『皇明祖訓』에서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간사한 역적이 있다면, 반드시 거병하여 그들을 주살하여 황제의 겉을 깨끗이 하라.”고 하였다. 훗날 주체는 태조가 남긴 조훈을 이유로 제태, 황자징을 간신으로 정의하여 그들을 주살해야 한다고 했고, 자신의 거병을 ‘정난’이라 칭한다.

7)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九族’까지이다. 성조는 방효유와 친분관계가 있던 제자, 선후배, 지인 등을 추가하여 ‘十族’, 즉 ‘열 번째 일족’으로 규정하여 모두 참수시켰는데, 이루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를 일컬어 ‘株連十族’이라고 한다.

8) [清]谷應泰, 『明史紀事本末』, 中華書局, 1977, p.307.

성하라고 명한다. 하지만 방효유는 영락제의 면전에서 그를 황위를 찬탈한 역적이라 비난하며 거부한다. 영락제의 少師였던 姚道衍이 사대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방효유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영락제는 방효유를 포함해 자신의 즉위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죽여 버린다. 그들의 사지를 갈아버리고, 연좌제를 적용해 멸문시켰으며, 그들의 아내자들을 모두 교방으로 보내버렸다. 영락제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를 잔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왕조의 통치를 굳건히 하려 했고, 황권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역적, 간신의 무리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그 뿐 아니라, 영락제는 건문제를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다. 영락제는 홍무 31년으로 끝난 태조의 치세기간을 홍무 35년까지로 연장시키고, 그 다음해를 영락 원년으로 명명했다. 또한 건문제의 치세기간에 새로이 단행한 모든 제도와 성문법을 태조 때의 것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건문제가 남긴 흔적들을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다.<sup>9)</sup> 제위에 오른 후 영락제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건문제가 치세한 4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자신이 태조의 아들이자 적통임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비단 영락제 개인의 정통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 황실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건문제 시기의 사적이나 정난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문인들의 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오랜 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萬曆 23년(1595), 드디어 건문제의 연호가 부활하고, 건문제의 충신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건문황제의 諡號부여 문제는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때까지도 여전히 금기시 되었다.<sup>10)</sup> 즉, 엄격히 말하면 건문제는 명이 멸망할 때까지 명의 황제로서 완전한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3. 『여선외사』 속 ‘정난지변’의 변용

金聖嘆은 정사와 소설의 차이를 『史記』와 『水滸』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전자가 ‘글쓰기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것(以文運事)’을 목적으로 한다면, 후자는 ‘글쓰기를 통해 사건을 창조하는 것(因文生事)’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sup>11)</sup> 즉 정사는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하기 위한 사실성이 강조된다면, 소설은 작가의 입장에 따라 사건을 창조해내는 허구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연의의 경우, 비록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나, 사건의 원형을 재현하기 보다는 작가의 입장에 따라 주인공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작가의 필요에 따라 설령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허구로 꾸며낼 수도 있다. 이는 『여선외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가는 비록 이 소설의 제목에 ‘외사’라는 명칭을 붙이긴 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전

9) 이에 대해서는 『明太宗實錄』卷10의 기록(一、今年仍以洪武三十五為紀, 其改明年為永樂元年. 一、建文以來祖宗成法有更改者, 仍復舊制, 刑名一依大明律科斷)과 『明史紀事本末』의 기록(癸酉, 燕王誓師, 以誅齊泰、黃子澄為名, 去建文年號, 仍稱洪武三十二年) 참조. [清]谷應泰, 『明史紀事本末』, 앞의 책, p. 236.

10) 劉倩, 『“靖難”及其文學重寫』, 中國社會科學院 博士論文, 2003, pp.20-21 참조.

11) 김성탄은 『讀第五才子書法』에서 역사서사와 허구서사의 차이점을 『史記』와 『水滸』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는데, 전자의 글쓰기는 ‘以文運事’이고, 후자의 글쓰기는 ‘因文生事’한다고 설명하였다.

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작가 여웅은 『여선외사』의 대의가 무엇이나는 劉廷璣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일찍이 明史를 읽었을 때, 황제의 자리를 양위한 정난지변의 대목에 이르면,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릇 충신, 의사, 효자, 열녀와 같이 연기처럼 사라져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간사한 반역의 무리들을 내쫓고 형벌을 가해 제 마음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려 합니다.

(嘗讀明史, 至遜國靖難之際, 不禁泫然流涕, 故夫忠臣義士與孝子烈媛, 煙沒無聞者, 思所以表彰之, 其姦邪叛逆者, 思所以黜罰之, 以自釋其胸懷之哽噎.)<sup>12)</sup>

위의 대화는 여웅이 본격적인 소설 집필에 들어가기 전, 유정기에게 구상하고 있는 소설의 대의를 설명한 대목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난의 부당성이 작가가 소설을 쓰고자 마음먹게 된 직접적 동인으로 작용했고, 향후 그가 쓰게 될 소설이 철저히 건문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역적 연왕을 옹정하는 스토리로 전개되리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듬해인 壬午年(1702), 여웅은 유정기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본격적인 소설 집필에 들어가고, 만 2년 만에 마침내 『여선외사』를 탈고한다.<sup>13)</sup> 소설을 탈고한 후, 여웅은 자서에서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건문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난지변’에 대한 분노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선외사』는 이미 연왕의 승리로 끝난 ‘정난지변’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1) 대립구도의 변화

작가 여웅은 『여선외사』의 대의나 창작동기를 밝힐 때, 숙부에게 황위를 빼앗긴 건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작가는 정난의 부당성에 분개하여 이를 허구서사 속으로 소환하여 건문제의 한을 풀고 연왕을 옹정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소설은 건문제가 황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가설을 세운다. 그런데 의외로 『여선외사』 총 100회 중 건문제가 등장하는 횟수는 극히 미미하다. 소설에서 건문제는 제18회에 처음 등장한다. 연왕이 정난을 일으키고, 마침내 금친문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자, 건문제는 자결하려 한다. 그때 문득 고황제가 위급 시 열어보라던 상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속에는 가사와 모자, 머리 깎는 칼, 그리고 예언서가 들어있었다. 건문제는 즉시 머리를 깎아 승려로 변장해 무사히 연왕의 눈을 피해 황궁을 빠져 나간다. 제20회와 제21회에서 건문제의 출궁과 그가 신라관에서 배를 타고 잠행을 했다는 소식이 언급되고, 제52회와 제53회에서 연왕군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건문제의 측근 4인이 그를 찾기 위해 짝을 나누어 閩(북건성), 粵東(광동성) 등을

12) [清]呂熊, 『女仙外史』(上), 앞의 책, p.1079.

13) 유정기는 여웅이 소설을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관리인데, 그가 저술한 『在園雜志』의 기록에 따르면, 여웅이 辛巳(1701)에 『女仙外史』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듬해 자신의 지원 아래 소설의 집필에 들어갔으며, 甲申(1704년) 가을에 초고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清]劉廷璣, 『在園雜志』, 中華書局, 2005. p.191.

포함해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한다. 건문제는 정난이 완전히 제압되고 난 이후에도 서사 전면에서 등장하지 않으며, 제100회에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소설 속 건문제는 마치 그의 행궁에 걸려있는 초상화처럼 상징적 인물로 활용된다. 그는 연왕에 대적하는 기의근왕군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상징적 존재일 뿐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다. 『여선외사』는 ‘정난지변’을 허구의 세계로 소환하면서 건문제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지 않고, 정난과 전혀 관계없는 역사 속 여성인물 唐賽兒를 끌어온다.

당새아에 관해서는 『明太宗實錄』卷222에 관련 기록이 있다. 새아는 원래 영락 18년(1420), 산둥지역에서 민간종교조직(백련교)을 기반으로 농민봉기를 일으킨 주동자였다.<sup>14)</sup> 영락제는 한 달 만에 그녀가 이끄는 반란군을 제압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당새아를 체포하지만, 새아는 감옥에서神通력을 부려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한다.<sup>15)</sup> 작가 여웅은 정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새아를 18년 과거로 앞당겨 소설 속 ‘정난지변’의 좌표 위로 소환하였다. 역사 속 새아는 스스로를 ‘佛母’라 칭하며 백성들 앞에서 종이를 오려 말과 병사를 만들어 내거나, 금은보화와 곡식들을 만들어 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神通술을 부려 백성들을 현혹시켰다고 한다.<sup>16)</sup> 소설 속 당새아 역시 법술을 부릴 줄 아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소설 속 새아는 사술이 아니라 神性을 가진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다.

새아는 원래 천상세계의 嫦娥였다. 자신을 희롱하는 천랑성에게 분노하여 그를 탄핵하는 표문을 올리지만, 천랑성에 대한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왔고, 항아는 인간세계로의 하계를 명받는다. 항아는 蒲臺縣 唐驤의 딸로 당새아로 태어나는데, 다행히 천상세계와 마계에서 온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보검과 예언서를 획득하고, 부단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일깨운다. 천하를 주유하며 건문을 넓히던 중 연왕이 정난군을 일으켜 남경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고향으로 돌아온다. 새아는 먼저 청주부 중 공서 한 곳을 선택해 행궁으로 삼아 건문황제의 귀환을 기다리는 한편, 연왕에게 대적할 ‘起義勤王軍’을 모병한다. 연왕과의 전쟁을 앞두고, 새아는 천하에 다음과 같은 표문을 공표한다.

건문 4년 여름 6월 8일, 신 당환 등이 황천후토의 신령께 맹세합니다. “얼번인 연왕 체가 조정에 반역하여 수도로 진격하여 사직을 찬탈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과 신이 모두 중요하는 바이고,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충성심을 나누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기를 손질하며 기의 근왕의 의거에 앞장섰습니다. 비록 죽음이 뒤따르든 한들 어찌 사양할 것이며, 설령 머리를 바친다한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맹세를 저버린

14) 山東蒲臺縣妖婦唐賽兒作亂。賽兒，縣民林三妻，少好佛誦經，自稱佛母，詭言能知前後成敗事，又云能剪紙為人馬相戰。(『明太宗實錄』卷222)

15) 永樂中，山東民婦唐賽兒夫死，唐祭墓回，經山麓，見石罅露出石匣角，唐發現之，中藏寶劍妖書。唐取書究習，遂通曉諸術。劍亦神物，唐能用之。因削髮為尼，以其教施於村里，悉驗，細民翕然從之。欲衣食財貨百物，隨須以術運致。初亦無大志，事冗浩闊；妖徒轉盛至數萬，官捕之，唐遂稱反，官軍不能支。朝命集數路兵擊之，屢戰，殺傷甚眾，逾久不獲。三司皆以不覺察繫獄。既而，捕得之，將伏法，怡然不懼，裸而縛之詣市。臨刑，刃不得入，不得已，復下獄，三木被體，鐵鉏繫足。俄皆自解脫，竟遁去，不知所終。三司、郡、縣將校等官，皆以失寇誅。(祝允明，『野記』，『國朝典故』卷32，北京大學出版社，1993，pp.535-536.)

16) 山東蒲臺縣妖婦唐賽兒作亂。賽兒，縣民林三妻，少好佛誦經，自稱佛母，詭言能知前後成敗事，又云能剪紙為人馬相戰。(『明太宗實錄』卷222)

다면, 신께서 죽음을 내리실 것입니다.”

(建文四年夏六月朔越有七日, 臣唐烜等, 暫告於皇天後土之靈曰: 孽藩燕棣, 反叛朝廷, 進逼京師, 將篡社稷, 人神之所同嫉, 天地之所不容, …… 共抒殉國之丹忱; 秣馬厲兵, 首倡勤王之義舉. 雖蹈鼎鑊以奚辭, 縱捐肝腦而摩悔. 有渝斯盟, 明神殛風之.)<sup>17)</sup>

새아는 표문을 통해 연왕이 황위를 찬탈한 역적임을 알리고, 자신들은 건문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임을 천명한다. 비록 건문제는 부재하지만, 그에게 충성하려는 자들이 새아의 기의근왕군에 하나 둘 씩 합류한다. 제24회는 대부분의 편폭을 행궁을 찾아온 인물을 소개하는데 할애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연왕과 맞서 싸웠던 장수이거나, 연왕으로 인해 殉難한 충신의 자제들이었다. 鐵公의 아들 鐵康安, 劉超, 小皂旗, 楚由基, 彭岑, 張倫, 張汝翼, 葛纘, 廬龍, 謝勇 등 수 많은 義士들이 ‘기의근왕군’에 합류하면서, 그 선봉에 선 당새아 역시 자연스럽게 ‘忠義’의 대의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를 거듭하면서, 당새아의 ‘기의근왕군’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연왕은 원래 천상세계의 천랑성이었다. 상제로부터 대명천자가 되어 홍복을 누릴 것을 약속받고 인간세상으로의 하계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월궁의 항아를 보자 색욕이 발동해 그녀를 희롱한다. 이에 항아가 크게 분노하자 슬그머니 인간세상으로 도망쳐 명 황실의 황자로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연왕 주체이다. 연왕의 이야기는 제15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태조의 넷째아들로 지략과 용맹을 갖춘 데다, 명의 건국에 지대한 공을 세워 북평부를 다스리도록 연왕에 봉해진다. 연왕의 야심은 행각승 姚道衍과의 만남으로 인해 본격화된다. 연왕은 요도연이 하얀 모자를 만들어 바치겠다고 하자, 그를 곁에 둔다. 하얀색은 ‘白’이고, 연왕은 ‘王’의 신분이니, 그가 머리 위에 하얀 모자를 쓴다는 것은 ‘皇’이 됨을 의미한다. 연왕은 황위를 차지하려는 욕망에 가득 차서, 황태자 懿文(즉 건문제의 아버지)이 살아 있을 때부터 호시탐탐 제위를 노리고, 의문이 사망하자 윤문이 황태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건문이 황제로 등극한 후에는 황제와 번왕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더니, 마침내 건문제의 측근인 제태, 황자징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정난을 일으키고, 북평 근방부터 차례로 정복하며 남경을 향해 진격해 나간다. 소설은 병법에 능하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전장을 누비는 연왕의 용맹함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연왕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데 더 많은 편폭을 할애한다. 제21회는 연왕이 충신 수천 명을 살육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자신을 역적이라 꾸짖는 방효유의 입을 귀까지 찢어버리고 그의 10족을 죽이고, 대리경 胡閏을 죽여 그 시체를 잣물에 담가 가족을 벗긴 후, 그 속을 풀로 채워 효시한다. 관찰어사 高翔의 손목을 자르고, 그 조상의 묘를 파내 잡건의 뼈와 함께 태운 후 그 재를 측간에 뿌리고, 가문을 멸족시킨다. 예부상서 陳迪과 공부상서 侯泰에게 자식의 귀와 코를 베어 만든 요리를 강제로 먹이고 3족을 참수한다. 이렇게 연왕의 손에 죽은 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 또한 제43회에서 奎道人이란 자가 연왕에게 도술로 당새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자, 연왕은 그의 도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인 衛王, 吳王, 徐王을 죽게 만들고, 형제들의 죽음을 그들을 진찰한 어의에게 뒤집어씌운다. 그리고 규도인의 술법에 희생양으로 쓸 동자들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주현에

17) [清]呂熊, 『女仙外史』(上), 앞의 책, p.208.



서 12, 3세의 어린이 300명을 강제로 징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왕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인륜도덕을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묘사된다.

『여선외사』는 ‘정난지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서사의 중심인물을 건문제와 연왕이 아닌, 당새아와 연왕으로 그 설정을 바꾸었다. 당새아가 기의근왕의 선봉에 서 있으므로, 그녀와 건문제를 한 진영으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살아있는 건문제가 서사의 주변부로 물러서고 당새아가 주인공으로 설정되면서 서사 속 정난지변의 성격에 미묘한 변화가 생겨난다. 건문제와 연왕의 대립구도에서 정난은 황위쟁탈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문제가 서사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당새아가 차지함으로써, 이 두 사람간의 대립은 더 이상 황위쟁탈전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변모하게 된다.. 당새아는 건문황제의 초상화와 玉圭를 받들며 그의 환궁을 기다림으로써 건문제가 갖는 정통성을 이어 받고 있으며, 연왕에 의해 감옥과 규방에 갇힌 충신의 자제들을 죽음에서 구출해내고, 건문제를 향한 충심을 간직한 이들을 ‘기의근왕군’이라는 이름하에 규합함으로써 ‘충’이라는 대의명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수천 명의 충신을 살육해 황위를 차지하고, 피난길에 오른 건문제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파견하는 연왕에게는 자연스레 ‘역적’의 이미지가 덧칠되었다. 그리하여 당새아와 연왕간의 대립구도는 ‘정난지변’을 더 이상 황위쟁탈전이 아니라, ‘忠’ 대 ‘逆’의 대립으로 치환하게 된다.

## 2) 4년간의 전쟁이 26년간의 대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정난지변’은 건문원년(1399) 8월에 발생하여 건문4년(1402) 7월에 황성이 함락되고, 연왕이 양위의 형식으로 황제로 등극하면서 종결된다. 『여선외사』는 제15회부터 제18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사에 기록된 4년간의 전투과정을 간명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제21회에서 연왕이 황궁에 입성해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역사대로라면 제21회 이후는 영락제의 치세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소설은 제19회와 제20회에서 당새아가 연왕에게 맞설 기의근왕군을 모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제22회에서는 제남부의 鐵鉉이 연왕이 황제로 등극했다는 조서를 가져온 사신을 칼로 두 동강내고, 연왕의 목전으로 달려가 그를 ‘國賊’, ‘篡逆之臣’이라 꾸짖고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배치한다. 이처럼 소설은 영락제가 스스로 황위에 오른 제21회의 전후에 당새아의 기의와 철공의 죽음을 배치함으로써 영락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22회부터 연왕을 토벌하기 위한 기의근왕군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로써 ‘정난지변’은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난지변의 종결은 곧 영락연호의 사용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건문제의 연호는 건문원년부터 4년까지(1399-1402)이고, 성조의 연호는 영락원년부터 영락 22년(1403-1424)까지이다. 역사대로라면 『여선외사』는 제21회부터 영락의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선외사』는 영락의 연호를 지우고, 그 기간을 건문 5년부터 26년까지로 대체함으로써, 정난지변의 과정을 22년 더 연장시켰다. 건문의 연호에 따른 새아의 행보 및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3회~제28회	건문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옥에 갇힌 충신의 자제를 구출하고, 규방으로 끌려간 아녀자들을 구출</li> <li>• 9월 呂軍師, 高咸寧을 보내 靑州, 萊州, 登州 등을 공격</li> <li>• 태수 여강을 비롯해 연왕에게 항복했던 자들을 처단</li> </ul>
제29회~제42회	건문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주부를 건문의 행궁으로 삼고, 등주와 제남을 평정</li> <li>• 8월 가을, 內外官制를 의론하고, 文武取士科目을 제정</li> <li>• 여군사를 남쪽으로 파견해 濟寧, 兗州 공략</li> <li>• 고함녕을 북으로 파견해 臨淸, 東昌을 공략</li> <li>• 12월, 건문제의 노부(鹵簿)를 청주에서 제남의 행전으로 옮김</li> </ul>
제43회~제46회	건문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병을 앞세운 위청을 격파</li> </ul>
제47회~제48회	건문7년~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신의 자녀들이 배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선</li> </ul>
제49회~제51회	건문9년~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蟲災와 溫疫 퇴치</li> </ul>
제52회~제54회	건문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齊를 포위한 연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李景隆을 참수</li> </ul>
제55회~제57회	건문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여덟 오랑캐가 진상품을 올림</li> </ul>
제58회~제76회	건문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왕에게 황위를 양위할 것을 권고</li> </ul>
제77회~제80회	건문15년~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淮安, 維揚, 金陵을 공격하고, 한쪽은 河南을 공격</li> </ul>
제82회~제85회	건문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양, 양양, 패성, 형문 점령</li> </ul>
제86회~제91회	건문19년~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科를 재정비하고, 남녀의제를 반포</li> <li>• 刑書를 바로잡고, 부역을 재정비</li> <li>• 災荒을 해결</li> </ul>
제92회	건문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적 요광효 피살</li> <li>• 주체가 새아를 正宮으로 맞이하려 하나 실패</li> </ul>
제93회~제100회	건문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신들에게 諡號를 내림</li> </ul>
제93회~제100회	건문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군이 연왕의 12죄를 천하에 공표하고 복벌에 나섬</li> <li>• 귀모가 연왕의 목숨을 취함</li> <li>• 연왕의 세자가 즉위</li> <li>• 당새아는 하늘로 승천하고, 근왕병은 해산함</li> </ul>

『여선외사』는 비록 ‘글쓰기를 통해 사건을 창조’하였으나, 서사의 흐름은 위의 표처럼 편년체의 기술방식을 차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독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째는 복잡한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마치 소설이 아닌 ‘類似歷史書’를 읽는 느낌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소설은 편년체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사와는 반대로, 영락의 연호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 기간을 건문의 연호로 대체한다.

그렇게 연장된 22년이란 시간 속에서 당새아와 연왕은 때로는 군사적 충돌로, 또 때로는 술사를 앞세워 道力을 다투는 것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립을 통해 소설은 궁극적으로 ‘褒忠殛叛’<sup>18)</sup>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18) ‘褒忠殛叛’은 충의(충신)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반역자를 주살한다는 의미이다.

소설의 제46회는 과거 연왕으로 인해 殉難한 諸臣 50인, 殉節한 제신 29인, 전투 중 사망한 무신 17인의 작위와 성명, 諡號를 하나하나 열거해 그들을 추서하고, 그 외 충신들을 따라 자결한 부인에게는 貞烈郡君, 여식에게는 貞姑, 아들은 郎官, 며느리는 貞孝孺人이란 호칭을 하사하고, 비첩이라 하더라도 봉호를 하사한다. 또한 제92회는 건문 7년에 추서한 명단 중 빠진 이들의 작위와 사망 경위 등을 기록하여 그들을 추서했으며, 제100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충신들의 종적을 다시 한 번 기록하여 그들의 美名이 빠짐없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애쓴다.

한편, 『여선외사』는 연왕의 편에 선 역적들의 이름도 잊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기의근왕군과의 기나긴 전투에서 하나하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예를 들어, 제50회와 제51회에 등장하는 이경룡은 일찍이 건문제에게 대장군으로 기용되었으나 연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투항한 인물이다. 이 두 회차에서 이경룡은 기의근왕군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최후에는 부하로 가장한 平燕兒에게 몸이 두 동강나고 만다. 반역자 紀綱은 살점이 모두 뜯겨나가 머리만 남은 채 제물로 바쳐지고, 陳瑛, 陳琮, 芮美, 方峨 등은 백성을 해치는 탐욕스런 인물로 호시당하며, 上官猛은 싸움에서 대패하고 똥 속에 매장된다.(제60회) 胡靖은 연왕의 즉위조서를 쓴 탓에 사람들에게 ‘呼猪壯元(돼지장원)’으로 불렸는데, 제92회에서 연왕의 사자로 당새아에게 구혼하러 왔다가 동물의 똥을 먹는 굴욕을 당하고, 급기야 섭은낭의 주술에 걸려 흡사 돼지형상으로 변한다. 연왕의 소사 요도연은 자신을 몰라본 하급관원에게 매질을 당해 몸에 똥칠을 당하게 되고, 결국 소립의 무계화상의 지팡이에 맞아 죽는다.(제88회) 마지막으로, 연왕은 건문제를 암살하라고 하사했던 자신의 검에 목숨을 잃고, 만천하에 그의 12죄상을 알리는 토격문이 공개된다.(제98회)<sup>19)</sup>

연왕의 죽음과 함께 당새아는 하늘로 승천하고 기의근왕군은 모두 흩어짐으로써 ‘정난지변’은 마침내 종결된다. 하지만 건문제가 환궁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를 대신해 연왕의 태자 朱高熾가 제위를 잇게 되는데, 그가 바로 仁宗이다. 건문원년에서 시작한 서사는 인종의 재위로 귀결됨으로써 다시 ‘역사의 테두리’ 안으로 회귀하지만, 소설이 창조해 낸 22년의 시공간 속에서 마침내 무너졌던 강상의 도리가 바로 서고, ‘보충극반’의 이상이 실현된다.

### 3) 연왕: 亂臣賊子

『여선외사』에서 허구적 인물을 제외하고, 정사의 기록과 가장 다르게 묘사하고 평가하는 인물이 바로 연왕이다. 명대의 필기나 야사에서도 정난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李賢의 『天順日錄』, 王鰲의 『王文恪公筆記』, 陸容의 『菽園雜記』, 祝允明的 『枝山野記』, 姜淸의 『姜氏秘史』 등이 있는데, 이들의 필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비록 정난에 대해 서술하긴 하지만, 그 시비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황실의 忌諱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건문제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진 만력연

19) 연왕에게 투항했던 인물들은 정난지변이 종결되고 영락제가 등극하면서 관직을 제수 받는다. 하지만 훗날 紀綱이나 陳瑛처럼 영락제에게 하옥되거나 능지처참된 이도 있고, 胡靖(대각대신)이나 요도연(太子少師)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도 있다. 하지만 소설에서 이들은 정사의 기록과 무관하게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

간<sup>20)</sup>에 이르면, 정난의 기휘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다. 예를 들어 건문제 및 그의 측근들의 입장에서 정난을 묘사한 통속소설 『속영열전(續英烈傳)』<sup>21)</sup>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다만 소설은 건문제의 측근들도 충신이었지만, 연왕 또한 ‘聖君’이었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선외사』 속 연왕은 철저히 부정적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설정은 이 소설이 명 황실을 기휘할 필요가 없는, 청 왕조가 들어선 시점에 창작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제1회에서 연왕의 前身인 斗牛宮의 天狼星이 등장하는데, 그는 인간세상으로의 하계를 앞두고 항아와 그녀의 시녀들을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거부하는 항아를 억지로 범하려 든다. 항아가 분노해 직녀궁으로 달려가자, 그제서야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슬그머니 인간세상으로 도망간다. 소설은 연왕의 전신을 색욕에 가득 찬 황음무도한 천랑성으로, 후신인 연왕을 잔인하게 혈육을 죽여 황위를 찬탈하고 충신을 도륙해 강상을 어지럽힌 역적으로 묘사한다.

제20회에서 당새아의 책사인 呂律은 연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正名(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명’은 군신간의 크나큰 윤리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역성혁명을 일으킨 자를 亂臣이라 불렀으나, 동종간의 반역을 일으킨 자가 賊子임을 다 알아채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의 변왕은 난신적자 중 우두머리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역시 고황의 아들이니, 군신간의 대의가 끊어져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문황제는 성군으로, 사적인 친족관계에서는 연 변왕의 조카이지만, 대의에 있어서는 연 변왕의 주군입니다. 의문태자와 건문태손은 모두 고황제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연왕이 건문의 연호와 일문의 시호를 없애버린 것은 두 황제에 대한 배반이자 고황제에 대한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비도 주군도 안중에 없으니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릇 난신적자는 모두 주살해야 합니다.

(目今第一要著, 是正名二字. 名者, 君臣之大倫也. 從來異姓篡逆, 人皆稱為亂臣, 若同宗反叛, 則不能盡知為賊子. 燕藩者, 亂臣賊子之尤也, 而人鹹曰是亦高皇之子, 則君臣之大義滅絕矣. 建文聖主, 為燕藩之侄, 私親也. 其為燕藩之君, 大義也. 懿文太子與建文太孫, 皆高皇帝之所置也, 燕藩削去建文年號與懿文時號, 是叛二帝, 即叛高皇, 無父無君, 其罪滔天莫數. 夫亂臣賊子, 人人得而誅之.)”<sup>22)</sup>

‘正名’은 『논어』(子路篇)에서 공자가 정치를 맡기면 무엇보다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로 잡겠다’고 한 데서 유래한다. 공자는 군·신·부·자의 이름에 걸 맞는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신하가 신하답기 위해서는 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기 위해서는 孝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sup>23)</sup> 여율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정명’이라 한 것은 연왕이 일으킨 정난으로 인해 ‘不正名’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 萬曆年間(1573-1620) 건문제의 측근이었던 체태, 황자징, 연자녕, 경청 등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지고, 과거 사건에 연루되어 수자리 보내졌던 이들이 모두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21) 명대 창작된 장회체소설로 명태조 주원장이 죽고난 후, 손자인 건문제가 제위에 오르자 연왕 주체가 일으킨 ‘정난’을 다루고 있다. 총 34회로 구성되어 있다.

22) [清]呂熊, 『女仙外史』(上), 앞의 책, p.221.

23) 네이버 지식백과 ‘正名’(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00956&cid=41978&categoryId=41982>)

따라서 소설은 이런 세상을 만든 연왕을 반드시 주살해야 할 ‘난신적자’로 상정한 것이다.

#### 4. ‘정난지변’의 변용과 그 시대적 의미

『여선외사』는 한 작가의 손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봉건왕조시기에 조정에 대항해 봉기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앞세워 황제를 처단하는 내용은 가히 발작함을 넘어 파격적이어서 과연 소설이 창작되고 전파되었던 강희연간의 독자들에게 수용되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말을 늘어놓은 소설이라 치부하기에는 마치 역사서처럼 편년체로 정난지변의 전개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사적을 면밀히 재현해내고, 엄숙한 태도로 ‘보충극반’이란 충의의 이념을 설파한다. 또 그렇다고 역사서와 비견하기에는 죽은 건문제를 부활시키거나, 석가여래, 옥황상제, 나찰녀, 녹괴(鹿怪), 협녀가 등장하는 등, 천계, 마계, 인간계를 아우르는 세계관 속에서 도통 현실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것은 『여선외사』가 역사플롯을 차용한 소설이기에 가지는 모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허구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때로는 허구가 사실보다 진실을 더 잘 전달 할 수 있다.

김기봉은 역사플롯을 차용한 팩션에 대해 논하면서 “역사적 진실이란 허구를 배제한 100퍼센트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내용이 허구의 그릇에 담겨짐으로써 의미 있게 소통되는 이야기”<sup>24)</sup>라고 하였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여선외사』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작품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서사를 구성했으나 당시의 문인 독자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건대, 이 소설은 청대 초기의 독특한 세계관과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대초기의 문인들은 왜 ‘정난지변’을 변용하여 쓴 이 소설에 그토록 열광했는가?

앞서 밝혔듯이, 『여선외사』(清刊本)에는 진혁희의 서문, 유정기의 품제, 楊顥의 평론, 여웅의 발문과 자서, 葉敷의 발문이 권두에 있고, 각 회차의 말미에 여러 인사들의 평어가 붙어 있다.<sup>25)</sup> 평어는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다수 독자를 향한 ‘공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충분히 가진다. 평어는 서사세계의 바깥에 위치하지만, 그것이 소설의 내용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사세계에 대한 또

24)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p.22.

25) 江西 按察使 유정기는 소설의 대의를 듣자 여웅이 소설집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초고가 나오자 여웅과 머리를 맞대고 소설의 종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만일 그가 탄핵되어 폄직되지 않았다면 소설의 출판까지 지원했을 것이다. 강서 南安郡守 陳奕禧는 『여선외사』를 읽고 감탄하여 서언을 남겼을 뿐 아니라, 출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廣州府太守 葉敷는 발어를 남겼고, 그 외 강서학사 楊顥, 희극작가 洪昇, 예부상서 王士禛, 이부상서 송략(宋犖), 대학사 교래(喬萊), 이정중(李澄中) 등 당대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여선외사』에 평어를 남겼다. 서발과 평어에 참가한 총 67명(작가로 추정되는 外史포함) 중 출신성분을 고증할 수 있는 자는 35명이다. 그리고 그 35명 중 21명이 관리계층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평어자 고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楊梅, 『女仙外史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p.34 참조.

다른 층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평어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언행에 숨겨진 의미, 복선과의 조응, 사건의 흐름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평어를 남기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불특정 다수 독자를 상정한 ‘공적 글쓰기’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던져진 질문은 담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여선외사』 속 서발이나 평어를 보면, 건문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영락제에 대한 분노나 그의 몰락에 관한 조소와 풍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 (跋語) 영락이 이미 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어 위로 겨누었던 자이므로, 그를 ‘반역자’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永樂既爲天子矣, 而有舉刀相向者, 不得不謂之曰反.)<sup>26)</sup>

• (제17회) 이어촌이 말하길, 예로부터 하늘과 인간은 하나의 이치였으나, 오로지 건문과 영락기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건문이 황제가 된 것은 인간의 이치였으나, 영락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이치였다. 하늘이 흥하게 한 자, 인간들은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 (李漁村曰, 從來天人一理, 有建文, 永樂之際不然. 建文之爲君, 人也. 永樂之爲君, 天也. 天之所興者, 人皆惡之.)<sup>27)</sup>

• (제31회) 가와원이 말하길, 난신적자는 왕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家臥園曰, 亂臣賊子, 王法之所必誅.)<sup>28)</sup>

위의 평어와 발어의 내용들은 모두 『여선외사』가 다시 써내려간 정난의 ‘변용된 역사’에 적극 동조하면서, 영락제를 거침없이 주살해야 할 ‘반역자’, ‘난신적자’라 부르고 있는데, 소설의 내용과 평어가 상호작용하면서 영락제에 대한 강한 증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정사나 역사가 영락제를 비록 건문제와 충신들을 처리함에 있어 다소 잔인했긴 하였으나 그가 이론 치적들을 높이 평가<sup>29)</sup>하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강서학자 양웅은 평론에서 『여선외사』가 영락의 연호를 지운 것을 두고, 이것이 ‘만세의 공론(萬世之公論)’이라 단언했다. 그리고 정사에 기록된 일은 이미 확정되어 300여 년간 감히 이를 뒤집을 자가 없었는데, 『여선외사』가 당당히 정사에 맞서 정난의 사건을 다시 썼으니, 비록 소설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만은 실로 기서라 칭할 만 하다고 하였다.<sup>30)</sup> 또한 王新成은 당새아가 행한 일을 두고 “그 宗旨을 논한다면 정사에 해당한다.”(제46회)고 했고, 又航은 “만세 인심의 공분을 풀었다.”(제46회)고 평했다.<sup>31)</sup>

그렇다면 작가 여웅을 포함해 이들 독자들은 왜 영락제를 이처럼 증오했을까? 중국의 학자 趙園은 청대 초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정난’이 화두가 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26) 『廣州府太守葉敷南田跋語』, [清]呂熊, 『女仙外史』(下), 앞의 책, p.1071.

27) [清]呂熊, 『女仙外史』(上), 앞의 책, p.195.

28) [清]呂熊, 『女仙外史』(上), 앞의 책, p.355.

29) 영락제는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뒤, 북쪽으로 몽고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安南(베트남)을 정벌하여 국토를 넓혔으며, 정화가 이끄는 대함대를 파견하여 해외원정을 시행했다. 또한 문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고대에 편찬된 중국최대의 백과사전인 『永樂大典』을 편찬하기도 했다. 명말의 사상가 李贄는 『續藏書』卷九에서 영락제를 평가하기를, “우리 국가가 생긴 200여년 이래 편만한 삶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대부들은 배부르고 따스함에 평안해 하고, 사람들은 전쟁을 잊었다. 이는 모두 우리 명 성조문황제와 요소사(요도연)의 공이다. (我國家二百餘年以來, 休養生息, 遂至於今. 士安於飽暖, 人忘其戰爭, 皆我明成祖文皇帝與姚少師之力也.)”라 하였다.

30) 『江西學使楊顯念亭評論七則』, [清]呂熊, 『女仙外史』(下), 앞의 책, pp.1073-1077 참조.

31) [清]呂熊, 『女仙外史』(下), 앞의 책, p.519.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때 성조에 관해 의론할 때, 혼백도 놀랄 만한 한 글자가 은밀히 감추어져 있었으니, 바로 ‘篡(찬탈)’자였다. 이는 200여 년 간 사대부들의 가슴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글자였다. 물론 문관과 문인들이 건문제의 인자함을 칭송하긴 하였으나, 문인들은 황위에 4년 밖에 머물지 못했던 건문제에 대한 사모의 감정을 말하기 보다는, 연왕의 황위찬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했다. 이 사건은 후대 명대 역사 전체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운, 상당히 근원적 성격을 띤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왕조의 ‘초기 역사’가 그 이후의 전세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변칙성과 사대부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던 사악성으로 인해 문인들의 당대사에 대한 사고와 판단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쇠기를 박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당대사)에 대한 감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當此際有關成祖的議論中, 隱合著最驚心動魄的字樣, 即那個“篡”. 這也應是二百多年蓄於士大夫心中、只待一旦說出的字. 盡管建文帝的優容文臣文士頗被稱道, 但士人持久的憤慨, 與其說出於對那個據有皇位僅四年的天子的傾心, 不如說基於對燕王之篡的憤慨. 這一事件的巨大陰影, 覆蓋了其後的幾乎全部有明歷史, 被認為具有根源性意義. 它不止作為一個朝代的“早期歷史”決定了此後的事勢, 而且因其反常性以及士大夫不便明言的邪惡性質, 楔入了士人對當代史的思考與判斷, 影響了他們對當代史的感覚方式.”)<sup>32)</sup>

중국 봉건왕조의 경우, 나라를 다스리는 성문법이 존재했으나, 실제 통치이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유가 사상이었다. 영락제가 아무리 ‘정난’의 명분을 강조해도, 유가의 이념에 따르면 이는 신하된 자가 주군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역모였으며, 충신들을 간신으로 몰아 잔인하게 유린한 不忠, 不義한 사건이었다. ‘정난지변’에 숨어 있는 본말이 전도된 변칙성은 유가사상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난의 시비에 관한 오랜 기회는 문인들에게 왜곡된 유가사상의 근간을 바로 세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회는 명 왕조가 무너지고 청 왕조가 들어서서야 비로소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명 황실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곧 영락제에 대한 반전의 평가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까? 이는 여옹이 건문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반대편인 영락제를 물리치는 허구적 서사를 쓸 수 있었던 필요조건은 되었겠으나, 영락제를 역적으로 규정한 이 소설이 당시 독자들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설과 평어가 호응하며 이루고 있는 이 의식의 층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백낙청은 성공한 역사소설이 되려면 역사소설의 작가가 그려내는 과거가 바로 현재에 사는 독자의 절실한 현실적 관심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즉, ‘현재 역사의 구체적 전신’으로서의 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렇게 현재를 역사의 소산으로 보고 과거를 현재의 전신으로 파악하는 정신이 바로 역사의식<sup>33)</sup>이라는 것이다. 문학연구가 趙園 역시 ‘정난의 이야기’와 청대초기 사대부들이 가진 역사의식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청대 초기 사대부들이 ‘정난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은 까닭이, 이들이 명 왕조의 멸망을 ‘정난’과 연결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34)</sup> 무릇 제위의 정통성은 道統의 지지

32) 趙園,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46.

33) 백낙청,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 新文學에서의 出發과 問題點」, 『창작과비평』, 2(1), 1967, pp.6-7.

위에서야 비로소 바르게 서는 것인데, 영락제가 황위를 찬탈하여 강상의 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제위의 정통도 바로설 수 없었고, 도통도 무너졌으며, 이것이 명의 멸망으로 초래했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소설은 그 역사를 소환해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여선외사』는 정사가 왜곡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고, 무너진 강상의 도를 일으켜 세우며, ‘보충극반’을 실행해 충의의 이념이 구현된 허구적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 소설이 협의적으로는 작가 개인의 ‘정난’에 대한 사회에서 출발했을 수 있으나, 결국 청대 초기 문인들의 과거를 성찰하고자 하는 역사의식과 공명했기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 5. 나오며

흔히 정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문학은 패자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 중국문학사에서도 역사 속 승자가 아닌 패자를 동정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작품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sup>35)</sup> 작가 여웅 또한 자서에서 숙부에게 황위를 빼앗긴 소년황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락제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간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충신들에 대한 동정이 『여선외사』를 창작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인지, 『여선외사』는 철저히 건문제를 옹호하고 역적 연왕을 타도하는 입장에서 역사 속 정난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하지만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이유를 단순히 건문제를 옹호했기 때문으로 단순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각 시대에는 그 사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고유의 사고방식이 있다. 명청교체기가 명의 멸망을 목도하고 이민족의 지배아래 들어간 충격의 시기였다면, 청 왕조가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의 문인들은 명이 멸망하게 된 근원을 찾고자 했다. 청대 초기 ‘정난’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의 소산이자, 그들의 현재적 문제를 해석하려는 노력이었다. 『여선외사』는 이러한 시대의식과 그 궤를 함께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선외사』를 살펴보면, 소설 속 세계가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데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은 당세아와 연왕의 싸움을 각각 ‘충’과 ‘역’의 이념대립으로 치환시키고, 마침내 새아의 기의군왕군이 연왕군을 물리침으로써 ‘보충극반’의 이념을 실현한다. 충신과 열녀를 기록하여 세상에 미명이 남도록 하고, 간신을 조롱하고 처단하여 후세사람들의 반면교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왕이 ‘난신적자’임을 알리고, 건문제에게 황제의 위치를 돌려줌으로써, 연왕이 타락시킨 ‘부정명’한 세상을 ‘정명’하도록 만들었다.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서 반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설이 구현한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34) 趙園,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46 참조.

35) 예를 들어 『삼국연의』는 역사 속 승자였던 조조보다 패자였던 유비쪽에 충의의 이미지를 투영시켜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唐末의 시인 杜牧(803-853)은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한 항우를 안타까워하며 칠언절구시 「題烏江亭」를 지어 항우를 기억하고자 했다.



갖고 있던 독특한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明太宗實錄』卷222

金聖嘆, 『讀第五才子書法』

祝允明, 『野記』, 『國朝典故』卷32, 北京大學出版社, 1993.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中華書局, 1977.

劉廷璣, 『在園雜誌』, 中華書局, 2005.

呂 熊, 『女仙外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David Rolston, 조관희 역, 『중국고대소설과 소설평점』, 소명출판, 2009.

김정아, 「清代 『女仙外史』의 재조명」, 『중국소설논총』, 제46집, 2015.

\_\_\_\_\_, 「역사 속 妖賊이 소설 속 巾幗英雄이 되기까지」, 『중국학』, 제63집, 2018.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譚 帆, 『中國小說評點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루사오펑 지음,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李漢秋·胡益民, 『清代小說』, 安徽教育出版社, 1997.

백낙청, 「歷史小說과 歷史意識 - 新文學에서의 出發과 問題點」, 『창작과비평』, 2(1), 1967.

石昌渝, 『中國小說原流論』, 三聯書店, 1994.

선문대학교 중한번역연구소, 『녀선외사』(상·하), 이회문화사, 2005.

楊 梅, 『女仙外史研究』, 南京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劉 倩, 「“靖難”及其文學重寫」, 中國社會科學院 博士論文, 2003.

程國賦·楊劍兵, 「呂熊及其『女仙外史』新論」, 『陝西師範大學學報』, 第40卷第1期, 2011.

조관희, 「중국고전소설 평점연구-논의의 출발점 또는 예비적 탐색」, 『중국소설논총』, 2002.

趙 園, 『明清之際士大夫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한혜경, 「소설평점의 기능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지』, 1995.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女仙外史, 靖難之變, 建文帝, 燕王(永樂帝), 歷史意識, 評語		
	영문	NüXianWaiShi, The Battle of Jingnan, Emperor JianWen, King of Yan(Emperor YongLe), Historical Consciousness, Review		
<div>Rewriting of ‘The Battle of Jingnan’ and its historical meaning : Focused on the NüXianWaiShi in Qing Dynasty</div> <div>Kim, Kyung-A</div> <p>NüXianWaiShi is a popular novel created in the early Qing Dynas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popularity of NüXianWaiShi.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p> <p>Chapter 1 is an introduction.</p> <p>Chapter 2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Battle of Jingnan’, it happened in Ming Dynasty. This helps to understand the cause and effect of ‘the Battle of Jingnan’ and to understand what has changed in the novel.</p> <p>Chapter 3 analyzed how NüXianWaiShi rewriting the ‘the Battle of Jingnan’. When compared to history, there are three major changes. First, the opposition camp has changed. ‘the Battle of Jingnan’ was a battle between Emperor Wen Jian and King of Yan. But in the novel, it turned into a fight between Tangsa’er(women) and King of Yan. Second, the battle period was extended. The four-year battle turned into a 26-year battle. Third, the character of the King of Yan has changed. In history, it is regarded as a great king, but in the novel it is described as a wicked and traitor.</p> <p>Chapter 4 analyzes why this novel was popular in the early Qing Dynasty and what it means. This novel was written about ‘the Battle of Jingnan’, which was so popular that 67 people wrote a review. This chapter analyzes the popularity of novels based on 67 reviews.</p> <p>Chapter 5 is an conclusion.</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경아 / 金敬娥 / Kim, Kyung-A		
	소 속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shun7ziran@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2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